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6 제4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778·7427 FAX 02·778·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2006. 9. 5 발행인: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의 부산에서 열려,

2006 평신도주간 행사 '교회와 사회의 대화' 11월 15~17일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치도 민병덕 신부)는 9월 1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성 분도 은혜의 집에서 2006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평신도주간 행사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교회와 사회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평협은 평신도주일(11월 19일)을 앞두고

개최하는 이 행사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빙고과 저 출산, 생명수호 등 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평신도주간 행사는 실화되고



▣ 실는 순서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마리아 사업회(포클라레 운동)
-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의의 거울 세나투스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엄시태 세나투스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한국지속적인 성체조례봉사자협의회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협의회

있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사랑과 생명의 문화 청착, 청빈한 삶의 실천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를 근본으로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의 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 행사기간 : 2006년 11월 13일(월) ~ 18일(토)

■ 행사내용

1) 성가 축제 / 11월 13일(월) ~ 14일(화)

- 장소 : 명동천주교회 대성당

2) 교회와 사회 간 대화 /

11월 15일(목) ~ 11월 17일(토)

- 11월 15일 / 가난, 빈부격차 /
가톨릭 회관 3층 강당 / 오후 7시 ~ 9시
- 11월 16일 / 생명, 저 출산 / * / *
- 11월 17일 / 교회와 사회 / * / 오후 3시 ~ 5시

* 행사는 결정하지 않았음,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포럼 등
이날 상임위원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주
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들과 평신도



▲ 산업무관학인대 청기한 각 교구평협 위원과 전국 단체장, 서울평협 위원들이 조례도록에 대한 발표와 함께 모임을 나누고 있다.

교육에 관해 토의한 것과 관련, 각 교구 차원에서 평신도 교육 행사를 평신도주간 중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평협은 또 가톨릭대상 후보자 추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는 한편 지난 7월 제1차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한 '생명사랑특별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를 몰아내고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이틀에 걸친 이번 모임을 끝내면서 2일 봉헌한 폐막미사 강론을 통해 "2년 뒤면 설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평협은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건실한 사도적 수행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복음화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는 이날 생명수호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지난 7월 1차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위의 명칭을 '생명 사랑 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다음 10명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 최홍준 전국 평협 사무총장 위원 김도

선 수원평협 사무국장

위원 정정수 부산평협 사무국장

위원 심연무 전주평협 사무국장

위원 박순석 전국평협 기획분과위원장

위원 조남진 전국평협 문화분과위원장

위원 오현희 전국평협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위원 조화영 전국평협 사회사목분과위원장

위원 천인숙 전국평협 청소년분과위원장

위원 박문자 전국평협 여성분과위원장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와의 만남

평신도 교육 12가지 제안 토론

한국평협 각 교구 평협 회장단, 임원들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총무 민병덕 신부) 초청으로 9월 1~2일 부산 은혜의 집에서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만남 행사에 참석했다.

평협 임원들은 이날 만남에서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신도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며, 미래 교회 주역인 젊은 평신도 육성을 위한 교회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장 염수정(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를 비롯해서 민병덕(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전국평협 지도신부) 총무신부와 김한석·전원 신부, 김영희·최혜영 수녀·이관진·한홍순(한국평협 회장)·김왕기·최옥식·이윤자(서울평협 부회장)·이종우·최홍준(한국평협 사무총장)씨 등 평신도사도직위원회들과 이용기·이선자(대구평협)·정기수·홍의웅·이미현(광주)·서동호·장옥희·강인선(전주)·김승선·최세

화·박종기(춘천)·김명중·전경홍(대전)·고홍철·조종환·현옥련(안천)·안병철·김도선·김영로(수원)·윤봉우·김학길·박은숙·송연순(원주)·이정우·황성일·정경수(부산)·강희용(안동)·송상순·김경환·이남준(제주)·황기진·김득수(서울)·정업택·정창호(청주)·손해규·김우매(마산)씨 등 각 교구 평협 대표와 정은화(빈첸시오회) 한국평협 부회장, 심재기(꾸르실료)씨 등 상임단체장, 그리고 박순석(기획)·김길성(선교)·최종계(노년)·이광호(도농)·박문자(여성)씨 등 한국평협 분과위원장과 박윤창 홍보분과위원 등 60여명의 참석자들은 한홍순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 겸 한국평협 회장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문헌 「평신도 교육」(1987년)의 '열두가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교구 평협 교육 현황 발표와 토론 시간을 통해 평신도 역할과 사명을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현재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긴 해도 일관성이 없어 이뤄지고 교구에 따라 교육 기회 등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신도 교육이 마련돼야 평신도들의 교회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삼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교구가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화방송 TV나 라디오 등 교회 방송매체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참석자들은 한국평협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을 영상 매체에 담아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교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열두 가지 제안의 하나인 '젊은이 교육은 평생 신앙 투신의 기초가 된다'는 내용과 관련, 미래 교회 신앙의 중거자인 젊은이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교회의 투자는 적다며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하상신앙대학 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토마스, 지도신부 민병덕 비오)는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10월 2일 휴강) 오후 7시 서울 명동성당 고스트홀에서 제2기 하상신앙대학을 개설한다.

'주교님과 평신도의 만남'이라는 큰 주제에 걸맞게 이번 강좌는 총 8개 강좌 가운데 6개 강좌를 박정일(전 마산교구장) 주교, 두봉(전 안동교구장) 주교를 비롯한 여섯 명의 주교들이 직접 맡는다. 아들 주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삶과 신앙의 진리를 전송하게 펼치며 대화를 이끌게 되는 이번 강좌는 주제도 인생의 근본 등 교회 안의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 생활문화 등 사회 속 현안 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 9월 11일 / 인생의 근본문제 / 박정일 마카엘 주교(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마산교구장)
- 9월 18일 / 순교자들의 신앙 / 조광 이나 시오 교수(고려대 문과대학장, 역사학)
- 9월 25일 / 평신도와 성직자의 협력관계

두봉 레나도 주교(전 안동교구장)

- 10월 9일 / 가톨릭과 비판 언론 / 김순덕 올리안나 논설위원(동아일보)

- 10월 16일 / 은총생활과 의화교리(義化敎理) / 권혁주 크리소스토모 주교(안동교구장)

- 10월 23일 / 생명 문화 - 생명 사랑을 위한 반성 - '황우석 사건'을 중심으로 /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마산교구장, 주교 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장)

- 10월 30일 /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전주교구장)

- 11월 6일 / 평신도의 소명과 사회 생활 / 이용훈 마티아 주교(수원교구 총대리)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 활동에 박차

서울대교구 평협은 종전의 '가정·사회사목 연구소'를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병선)로 새롭게 발족시킨 가운데 최근 이 연구소의 연구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7월 18일 전체 연구위원회에는 민병덕 지도신부와 한홍순 회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첫째, 단기 계획으로 올해 교구 성체대회를 전후 해서 현재의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질문서 초안을 소위원회 중심으로 마련하며, 지도신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교구의 사목계획서 작성에 따른 의견도 개진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또 11월 평신도주간 행사 기획과 함께 중기계획으로 내년에 평신도사도직과 평협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2008년에는 평협 설립 40주년에 걸맞은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홍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연

구소 활동을 요청했다.

“‘가정·사회사목연구소’를 ‘사회사도직연구소’로 개칭하고 첫 모임을 갖게 됐다. ‘사목’이 평신도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사도직’ 연구소라고 고쳐 부르기로 한 것이다. 평신도사도직은 사회 현장에서, 즉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생활현장에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은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우리 연구소가 해야 할 줄 안다. 신자들이 사도직에 투신해서 폼으로 떨 수 있도록 머리를 제공하는 ‘싱크 맹크’가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도 아울러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민병덕 지도신부는 “2008년이면 평협 설립 40주년이 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지도 지난해로서 이미 40년이 지났다”고 밝히고 공의회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평협이 조직됐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아가도록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는 점을 주지시킨 다음 “‘사목직’의 참뜻을 바로 알고, 주교와 신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것 또한 교회 안에서 연구해야 할 대목이다. 평협이 4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연구소의 업적 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목국이 하고 있는 ‘교구장 사목교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 시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사도직연구소는 8월 25일과 9월 6일 등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질문서를 확정해 10월 중으로 신자들의 신앙실태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성가 노랫말 공모 10월 말 마감

서울대교구 평협은 미사 전례 성가의 토착화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면서 이를 널리 보급한다는 취지로 성가 노랫말 공모에 들어갔다. 21세기 문화 복음화시대에 부응하고 전례 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그 활성화를 통한 신앙인들의 일치와 화합을 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평신도주일을 기해 성가합창제를 개최하고 있는 평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토양을 좀더 튼튼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풍부한 성가의 창작과 육성에 뜻을 두고 1차로 노랫말을 공모하고 있다. 노랫말 공모는 10월 말까지 응모작품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13~14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성가합창제에 서 우수작을 시상하게 된다.

우수작으로 뽑힌 노랫말은 내년 상반기 창작곡 공모를 통해 제3회 성가합창제 때 지정곡으로 발표하게 된다.

노랫말 응모작품은 서울대교구 평협(서울 중구 명동 2사 1 가톨릭회관 510) 사무국에서 받고, 전자우편(clak@catholic.or.kr)으로 보내도 된다.

● 본당총회장, 교구 운동·단체장, 평협 임원 합동연수회

서울대교구 평협은 9월 4일(월) 오전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본당회장, 교구 운동·단체장,

평원 임원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교구장 정진석 주기경 집전 미사를 시작으로, 12시 만남의 방에서 주교님과 함께 하는 '도시락 친교의 시간'에 이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주제로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이며 청소년 담당인 조규만 주교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고, '현실분석을 통한 본당 전단방법론'에 대한 민병덕 교구 사목국장 겸 평원 지도신부의 강의가 이어졌다.



▲ 본당총회장: 교구 운동·단체장, 평협운영원이 함께한 합동연수회에서 서울지역 본당 총회장들이 정진석 주기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6 하반기 수원교구 본당 총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안병철 도미니코, 지도신부 이찬종 요셉)가 주관한 '2006 하반기 본당 총회장 연수'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이를 동안 아본의 집에서 있었다. 연례행사로 열린 이번 연수에는 강의를 통한 연수와 더불어 '본당 총회장과 교구장의 만남'



의 장이 마련돼 총회장들이 본당의 소리를 교구장께 직접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수원평협은 교구장 주교의 뜻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는 교구장의 사목방향과 의사를 총회장을 통해 평신도들에게 전달하고, 하반기에는 평신도들의 의사를 주교님께 전달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호 이해의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124명이 참가해 교구 청소년 국장 한승주 신부의 '청소년 사목'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제1주제 '본당 발전을 위한 총회장의 역할'과 제2주제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대리구별로 분임토의를 진행한 후 그 내용을 전체 모임에서 발표했다.

교구장 최덕기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사제와 총회장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었음을 강조하고, 복음전파가 시급하므로 물질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라고 당부했다. 최주교는 또 현재의 총회장들에게 각자 본당의 역대 총회장을 중무한한 업적을 남기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장애인 사목에 관한 자료' 제작 배부

수원교구 평협에서는 2006년도 사업으로 기

획된 사목적 복음화 교육 자료의 하나로 '장애인 사목'에 관한 자료를 지난 7월 제작해 교구내 본당 총회장들에게 나눠주었다. 장애인에 대한 본당 총회장과 평신도들의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사목에 관한 지침으로 활용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협이 <사목>지 2002년 7월호와 2006년 4월호에 실린 장애인에 관한 특집을 모아 제작한 것이다.

- 생명사랑운동 순회강연 개최(이기정 신부)
- 영화상영 실시계획
(요한23세 혹은 요한바오로 2세)
- 전국평협 2차 회의 겸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행사 협조
- 평신도주간 행사(생명존중운동 개최)
- 순교 사적지 책자 발간, 보급 및 성지순례
- 부산평협 회보 및 회지 발간의 전
- 2006년 상반기 결산보고와 선교상 시상계획
- 지구별회의와 기타 안건토의가 있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제137차 상임위원회의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정우 마르티노, 지도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지난 7월 14일(금) 오후 5시 30분부터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평협 제137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 상지 평정의 집에서 7월 1일과 2일 양 일에 걸쳐 있었던 올해 1차 전국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상임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루었다.

- 군(軍) 영세자 지원 사업 실시

● 쓰나미 피해 필리핀 인판타 교구 방문



▲ 필리핀 인판타 교구 방문 중 미사 감동모습



▲ 137차 능률미문화의 참석자들

부산교구에서는 지난 2004년 쓰나미 피해를 입고 아직도 제대로 복구를 못한 필리핀 인판타 교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과 의류 2,500여 점을 전달하기 위해 6월 11일(일)~17일(토) 1주일간 지원단(단장 윤경철 신부)을 구성하여 평협 대표단과 함께 필리핀 인판타 교구를 방문했다. 평협에서는 이정우 회장, 황성일 부회장, 본당 지구 대표단이 함께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만번을 죽어도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책 발간



서 뒷은 「만번을 죽어도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단행본을 발간했다.

광주대교구 평협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학술 회의를 통해 교구내의 순교자를 확인하고, 순교자의 정확한 지적과 건축 등의 고증을 거쳐 성지를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순교자의 영성을 교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사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전개와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 개최(2005. 5), 순교자현양회 출범(2005. 9) 등을 통해 순교지를 성지로 개발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발간사에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교구의 순교자를 확인하고 순교지를 성지로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책을 발간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하고, "사복시성의 청원을 위한 불임자료와 이 지역 신앙의 활성화와 복음화에 도움되리라 확신한다"고 축하였다.

광주대교구는 2003년부터 나주 무학당 순교

자 4위, 즉 기해박해(1839년)와 병인박해(1871년) 때 나주에서 순교한 이춘화(베드로), 강영원(바오로), 유치성(안드레아), 유문보(바오로)의 시복시성을 위해 '나주 무학당 성역화 사업'을 추진, 3회에 걸쳐 나주 순교자들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해 무학당이 순교지임을 입증한 데 이어, 2004년 5월 무학당 순교자 축복식을 열기도 했다.

● 광주대교구 평협·여성위원회 합동 임원연수회

광주대교구 평협과 여성위원회는 합동으로 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양주 지도신부를 모시고 8월 26일(토)~27(일) 해남 팽끌공소에서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황양주 신부의 인도로 가정과 부부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통해 "성공한 인생이란 배우자로부터 존경받는 삶이라는 말처럼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더욱 기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었다. 연수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동행함으로서 임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하느님 뜻에 더욱 합당한 봉사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여수지구평협 임원연수회

여수지구 평협은 관할 7개 본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3일(일) 여수 문수동성당에서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여수지구는 천주교 전래 7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과 평신도 대표 간담회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동호, 지도 조정오 총대리신부)는 8월 15일 전주교구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교구 평신도사도직 제단체장들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구 2007년 사목교서 작성을 앞두고 기초자료수집과 여론 수렴을 위해 교구장 주교 뜻에 따라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교구내제단체 대표와 평협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 모든 단체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활성화 방안을 전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해 세 시간 이상 진

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평신도들은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교회상 구현과 사회 복음화 활동 촉진 △교구차원 영적 쇄신 운동 추진 △소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통한 친교의 교회상 도모 등을 건의했다.

이병호 주교는 방인자치교구 설정 70주년이 되는 내년 교구청 완공을 기점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특히 평신도들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잘 살려 교회 발전을 도모하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교회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가톨릭미술가회 교구설정 70주년 전시회 갖기로

전주교구 가톨릭미술가회(회장=박종구 바드리시오, 지도신부 현유복 베네딕도)는 지난 8월 7일(월) 호성동성당에서 회원 전체 모임을 갖고 내년 교구설정 70주년에 맞춰 전시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년간 공백을 뒤로하고 새로 선출된 박종구(바드리시오)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미술가회는 각자의 은사를 기꺼이 주님께 봉헌하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 사생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신앙체험 안에서 작품 활동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회합 후 친교의 시간과 함께 새로 가입한 회원들 환영식도 있었다. 미술가회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미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초보자에게도 열린 모임으로 연중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9월 첫 주 월요일(임원모임)과 11월 첫

주 월요일(전체모임)에 열린다.

● 전국 가톨릭 간호사·간호대학생 연합 피정

전주교구 간호사회(회장 최덕자 안젤라, 지도
신부 여학구 아우구스티노)는 8월 26일(토)부
터 8월 27일(일)까지 전국 가톨릭 간호사와 간
호대학생 연합피정을 '손을 펴라'는 주제로 천
호피정의 집에서 열었다.

이날 피정 강문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간
호사들은 항상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두 손을 활짝 펴서 하느님의 사랑
을 온전히 듬뿍 받아 그대로 환자들에게 나누
어주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그런 삶을
살도록 당부했다. 이번 피정은 전국 14교구에
서 약 190여명이 참석해 큰 호응 속에서 압차
게 진행되었고, 피정과 연계해 마지막 날에는
참석자 모두가 치명자산과 전통성당 등의 성지
를 순례하며 순교자들의 한결 같은 믿음과 삶
을 본받고자 했다.

● 전주 카리타스 봉사단 원주교구 긴급 수해복구 활동

전주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이사 이병호
주교) 산하 긴급구호봉사단체로 5월 21일에 창



단된 전주카리타스봉사단(단장 김정규 지도신
부 장상원)은 지난 7월 27일(목)에 강원도 평창
군에서 수해복구활동을 실시했다.

39명의 단원들이 오전 6시에 전주공설운동
장을 출발해 원주교구 대화성당에 도착해 냅비
와 반찬통 등 생필품을 전달한 후 양식장으로
옮겨가 토사를 걷어내는 복구작업과 농가 수로
축대보강 작업에 땀을 흘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슬보슬 내리던 비
가 점점 굽어지면서 이 지역에 대피령이 내렸
고 소방대원이 와서 봉사단을 모두 철수시켜
아쉽게 그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화목한 가정 만들어요” 전주평협, 교 구 가정사목부와 가족 주말 프로그램 실 시

전주교구 가정사목부(전담 김정민 신부)와 전
주교구 평협 가정성화분과는 8월 4일~6일까
지 2박 3일간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가족”이
라는 주제로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제1차 가
족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구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날 가족주
말 프로그램은 M.E 주말 프로그램과 가족치료
프로그램의 좋은 점을 모아 가정사목부에서 개
발한 프로그램으로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각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가족 구
성원 전체가 뚜렷이 인식하고 개선해 더욱 화
목한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 실시했으며 6가족 24명과
봉사자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가족주말 프로그램은 첫째 날 제1제 ‘우리가
족을 소개 합니다’를 시작으로 제2제 ‘우리가



족의 모습을 성찰 합니다'. 제3제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가?', 제4제 '용서를 청합니다. 용서 합니다', 제5제 '우리 삶을 새로 지어요', 제6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변화된 가족)' 등을 주제로 5분~10분 간의 길잡이 강의에 이은 토론과 주어지는 상황을 가족이 함께 또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학동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전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족주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계획 실시한 전주교구 가정사목 전담 김정민 신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 간에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듯이 아무 문제없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 간에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문제들을 남편, 아내, 자녀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밝혀내고 치유함으로써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제11회 성체현양대회 개최

지난 6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전주 치명 자산성지 광장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 협의회(회장 채수현, 지도신부 김광태) 주관으로 제11회 성체현양대회를 열었다.

'예수 마음의 사람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권민자 수녀의 주제 강의와 2부 이병호 주교 주례의 장엄미사, 3부 성체행렬 및 성체강복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성체현양대회를 통해 주님께 대한 신심을 다시 한 번 둔우고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소년 Pr. 성인 간부교육

지난 8월 26일(토)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강상근 지도 김광태 신부) 산하 소년 브레시디움 성인간부 교육이 전동성당 교육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성인간부 교육은 레지아 단장의 '성인간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강의'와 '그룹 토의'로 진행됐다. 강상근 레지아 단장은 "성모님은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청소년들을 레지오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인 간부는 소년 단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도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레지오 정신을 교육해야 한다. 성인 단원들의 소년 브레시디움 관리는 의무이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토의에서는 '소년 단원의 중원 방안'과 '성인 간부 확보와 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소년 단원의 중원방안에 대해 각 본당의 사례(첫 영성체 어린이, 성지순례, 영화 관람 등)를 듣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 제주교구 제1차 공의회 문헌 공부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송상순 베드로, 지도선부 고병수 요한)는 2005년 6월 27일부터 시작한 제1차 교구장과 함께하는 공의회 문헌 공부('교회에 관한 교의현장')를 올 7월 10일 끝내고 책거리 행사를 가졌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을 주제로 제2차 공의회 문헌 공부를 할 예정이다.

● 제주교구 신학생들과의 간담회

제주교구 평협은 8월 8일(화) 교구소속 신학생들을 초청,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제1회 천주교 제주교구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진공모전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 가톨릭사진가회 주관으로 제1회 천주교 제주교구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진공모전이 열렸다.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한 이번 사진공모전은 소공동체 활성화를 대주제로 하고, 가족애(家族愛)를 표현한 사진과 '화목한 가정, 다복한 가정, 아름다운 성가정'을 소주제로 개최했으며 가톨릭 신자들 많이 참여한 가운데 대상인 성가정상에는 서울교구 반포4 성당의 오창설(프란치스코)형제가 출품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36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으며 9월 13일 수상작가들에 대한 시상에 이어 이날부터 17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 2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 국회연합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의원들이 기도회를 마친 뒤 손꼽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신자 국회의원들이 9월 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기 국회 개원기념 국회연합조찬기도회'를 열어 상생과 일치 정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가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2주년을 기리면서 마련한 이날 조찬기도회는 이 모임 회원인 김성근(열린우리당, 원불교) 의원의 진행과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의원의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경과보고에 이어 가톨릭의 유흥식(대전교구장) 주교를 비롯해 백도웅(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원답(불교 조계종 조계사 주지) 스님, 이 혜정(원불교) 교정원장 등 각 종교 대표 성직자들의 기도로 진행됐으며 임채정 국회의장, 이 상득 부의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와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각 종교

모임 소속의원, 국회 신도회 회원과 포콜라레 운동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이 모임이 국회 안에 일치를 가져다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 레지오 마리애 단계교육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단장 박기탁 사도요한, 지도신부 최홍길 레오)에서는 레지오 단원들의 자질함양과 간부 양성을 위해 경북 왜관 연화리 피정의 집에서 7월 8(토)~9(일)에 3단계, 7월 15일(토)~16일(일)에 1단계 단계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1단계 교육은 최홍길 지도신부와 김길수 교수, 세나뚜스 간부들이 강사로 나서서 주로 레지오 단원의 기본영성과 레지오 간부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수강인원 109명).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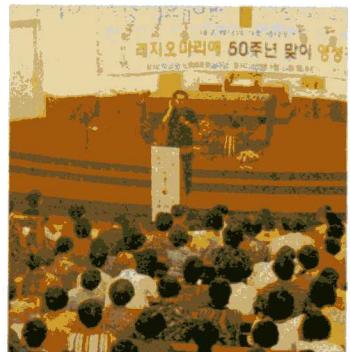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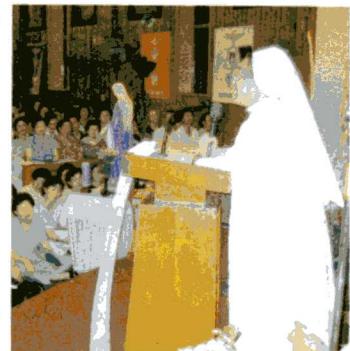
3단계 교육에서는 최홍길 대구 세나뚜스 지도신부와 김정우 신부(대구가톨릭대학), 최경용 신부(부산 구포본당 주임) 등의 강사진이 나서서 레지오 최고 간부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강의와 더불어 레지오 사도직활동과 선교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강의를 실시했다(수강인원 140명).

레지오 간부양성은 물론 신자 재교육에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이 교육의 내용을 한층 더 충실히 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좀더 많은 단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맞이 영성 강좌

대구 세나뚜스는 2007년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50주년 기념 영성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그 18번째 영성강좌가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올리베따노 성 베네



딕토 수녀회)를 초청해 2006년 7월 31일(월) 저녁 삼덕성당에서 개최됐다. ‘烟囱더위’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는 단원들이 영성강좌에 참가해 성당 안팎을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뤘다.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 로제



리오 형제가 이날 노래 도우미로 특별출연해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주기도 했다.

이어서 8월 28일(월)에는 제19회 영성강좌로 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장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를 초청한 가운데 1,200여 단원들이 참석해 늦더위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루었다. 차동엽 신부는 이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곱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둘째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셋째 “꿈을 꾸어라”, 넷째 “믿음위에 굳건히 서라”, 다섯째 “입술로 선언하라”, 여섯째 “습관을 길들여라”, 일곱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의 다음 영성강좌는 9월 25일(월) 7시부터 부평 제일고등학교 장으로 재임 중인 안중한 베다 수사를 초청해 레지오마리애 창시자인 아일랜드 출신 “프랭크 더프의 생애와 영성”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 ‘인터넷 교실’ 개설

대구 세나뚜스는 지난 8월 1일~3일과 8월 8일~10일, 각 사흘간의 일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효성여고 컴퓨터실에서 인터넷교실을 개최했다. 현대사회의 추세인 정보화시대에 발맞추고 단원들의 인터넷에 관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인터넷 기본상식, 인터넷 접속법, 간단한 문서작성, 인터넷에 글 올리는 방법과 교회관련 사이트 소개 등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강의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실에는 황원근 비오 효성여고 교사,



추연지 아네스 세나뚜스 홈페이지 관리자, 김시일 라우렌시오(대건고 전산실)형제가 열강해초보자들이 대다수인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인터넷교실에는 두 차례의 강좌를 통해 모두 49명의 단원들이 수료했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꼬미시움 단장, 부단장 연수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윤병길 세례자 요한)에서는 꼬미씨움 단장, 부단장(46명) 연수를 7월 15~16일 부천 은혜의 집에서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병길(세례자요한)신부 주례로 개회미사 봉헌과 2007년도 연중계획에 대한 강의, 그룹 토의와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다.

이튿날에는 지도신부의 ‘평신도 그리스도인’ 주제로 강의, 그룹토의 발표, 레지오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팽종섭(그레고리오)단장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에서 ‘레지오의 정체성 확인’ ‘레지오 정신 실천’ ‘청소년 단원 육성 등 세나뚜스의 목표에 따라 각 꼬미씨움에서 2007년도 연중계획을 수립을 위한 안내가 있었다.

● 꾸리아 간부 교육 실시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에서는 꾸리아 간부 교육을 3일간 실시했다. 7월 24일(월)에는 꾸리아 부단장교육(271명)으로 이용일(윤일요한) Se. 부단장이 꾸리아 부단장의 임무, 역할 회합에서의 부단장 역할, 평의회 출석부 정리 방법, 협조단원 모집과 돌봄 등에 관해 강의했다. 이 부단장은 이날 평의회와 끄레시디움에서의 부단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25일(화)에는 꾸리아 서기교육(255명)으로 한관섭(미카엘) 세나뚜스 서기가 꾸리아 서기로서 필요한 영성과 꾸리아 서기 임무, 끄레시디움 서기임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평의회 월례보고서, 평의회 회의록, 평의회 종합보고서 작성에 다른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특히 배당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끄레시디움 서기 회의록을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7월 26일(수)에는 꾸리아 회계교육(273명)을 한휘운(아네스) Se.회계가 월계표, 입금전표, 지출전표, 보고서식, 행사 기타행사의 수지보고서 작성, 수입지출 일람표 기재요령, Pr.회계장부 기록 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특히 성모님의 군자금을 관리하는 평의회 회계업무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세나뚜스. 팽종섭 단장은 3일간 강의를 맡았는데 처음 실시하는 꾸리아 간부 직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끄레시디움에서 펼치는 사업을 위한 참다운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레지오의 미래를 열기 위한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레지오가 이룩한 업적은 인정받고 있으나 심기일전의 마음가짐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 팽단장은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의 2007년 목표는 ‘레지오 정체성 확인, 레지오 정신의 실천, 청소년 단원의 육성’으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 소년꾸리아 설립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8월 26일 오후 3시에 세나뚜스 교육실에서 청소년 단원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꾸리아를 설립했다. 계성여자고등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동성중학교, 동대문중학교의 학생 단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된 학생 꾸리아는 명칭을 ‘파티마의 성모’로 정했다.

윤병길 지도신부는 미사강론에서 “얼마 전 세나뚜스 간부와 레지오가 처음시작 된 아일랜드를 방문해 창설자 ‘프랭크 더프’의 삶의 발자취와 그곳 단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왔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델로 사셨는가? 유태인의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충실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도 예수님께 교육은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여러분의 모델은 어머니이실 것이라며 “레지오 단

원은 성모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신이 성화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신심단체이다. 오늘 시작하는 '파티마의 성모' 꾸리아 소속 단원들인 여러분은 작은 봉사를 실천하려는 용기를 갖도록 해야한다. 용기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포기하기 쉽다.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선배 단원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봉사와 희생을 생활화하는 레지오 단원이 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개회미사에 이어 팽종섭 세나뚜스 단장이 꾸리아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시작기도, 묵주기도에 이어 꾸리아 간부 선출이 있었다. 단장에 황인석(바오로) 부단장 서효정(마리아) 서기 유정현(베네딕타) 회계 임세라(카타리나)가 선출되어 소년단원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세나뚜스 간부 꼰칠리움 방문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5간부와 지도신부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레지오 마리애 총본산인 아일랜드 더블린의 꼰칠리움을 방문했다. 이들은 꼰칠리움 타미 멕게이브 단장을 비롯한 간부와 많은 단원들의 봉사와 안내를 받아 레지오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고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골룸반 외방선교회의 마 브렌드 신부와 아일랜드 한인공동체 한만삼(요한) 신부, 이은숙(살베리오) 수녀의 환영을 받은 이들은 교민 신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서울 세나뚜스 5간부와 지도신부는 꼰칠리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와 세계 레지오의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레지오 창시자 프랭크 더프의 생가와 잘 정리 보관되고 있는 유품 등을 견학하면서 근면 성실했던 선배 단원의 삶을 느끼고, 묘지를 참배하면서 그의 시복시성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일행은 성모님의 발현지로 유명한 '성지'를 순례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자들과 함께 원형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성모님 거동에 동참하며 묵주기도 행진을 함께 했다.

골룸반 외방선교회의 마 브렌드 신부의 안내로 250년 전에 건축된 수도원 건물에서 하루 밤을 머문 이들은 성모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에는 유서 깊은 아울레이지 성당에서 주교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례하는 은총을 받았다. 로슬레이역을 출발해 더블린역에 이르는 3시간의 해안선 기차여행에서 아일랜드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만끽한 이들은 '위콜로마움턴'에 올라 '기네스' 재단이 자랑하는 장엄한 호수와 별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역사적인 서울대교구 레지오 도입 50주년 신앙대회를 열었던 2005년 8월 17일,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잊지 못하는 세나뚜스 간부들은 50주년 행사 1주년을 아일랜드 여행 마지막 날에 맞춰진 사실을 알고 인간의 의지로만 이루

어진 일이 아님을 느꼈다.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 신임 지도신부와 임원진, 정진석 추기경 예방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은화 다미아노, 지도신부 김준석 멜키올)는 신임 지도사제로 부임한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김준석 멜키올 신부와 정은화 회장, 정해정 대구 회장, 조광호 청주 회장, 심재욱 의정부 회장, 류근익 인천 회장, 정연오 감사, 김대현 재정담당, 이인환 청년담당, 안성훈 청년대표 등 임원진과 함께 지난 8월 10일(목)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했다.

새 지도신부와 함께 한 번 더 힘을 갖고 일어서길 기대한다는 정추기경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기도로 무장되어야 한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 분배가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지도신부 취임미사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는 지난 8월 12일(토) 오전 신임 지도신부(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김준석 멜키올 신부) 취임미사를 가톨릭회관에서 봉헌했다.

신임 김준석 멜키올 지도신부는 취임미사 강론에서 "교구 사회사목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요 멤버는 항상 빙첸시오 회원들이었다. 우리가 빙첸시오 정신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고통 받고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비우고 겸손할 때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이웃들에게 결단력이 있지만, 위압적이지 말아야 하고 친절하지만,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활동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우선이다. 주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좋은 활동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 제 2회 회장단 모임 겸 전국 수련회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회장

황규열 토마스, 지도신부 김덕근)는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 강원도 고성 까리따스 피정의 집에서 제2회 회장단 모임 겸 수련회를 가졌다. 김덕근 대표지도신부를 비롯한 9개교구 회장단 33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중간 예산보고와 각 교구 활동보고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설악산 비선대와 권금성 등반에 이어 친교의 시간에 인천교구 서애숙 회장의 체험담 발표가 있었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전국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한국 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강 성영 요한 보스코, 지도신부 김경화 베네딕토)는 지난 8월 9일(수)~11일(금), 2박 3일 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420여명이 모여 “사랑으로 하나되어”라는 주제로 기도와 전례 등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악예술단과 생활성가팀 ‘데우스’의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포항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등으로 야영활동의 제약이나 여가의 기회가 부족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해는 특히 안마업 위헌 판결로 정신적?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시각장애인들이 잠시나마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정

● 한홍순 전국평협 회장 국제 가톨릭 윤리신학자 대회 참석

한홍순 토마스 전국평협 회장은 지난 7월 8일 ~ 1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파도바에서 열리는 ‘제1차 국제가톨릭윤리신학자 다(多)문화간 대회’에 참석했다. 한 회장은 ‘각 대륙의 주요한 도덕적 도전들은 무엇인가’, ‘이 도전들에 대해 윤리신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해 인도의 클레멘트 캄포트 신부와 필리핀의 안네스 부라잘 교수와 함께 발제자로 나섰다.

● 한홍순 회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의 예방 받고 환담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은 8월 10일 평협 회장실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을 만나 청소년 선도와 종교계의 역할 등에 관해 환담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현재 펼치고 있는 ‘어른이 변하면 청소년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여는 약속’ 운동을 설명하고 홍보 리플렛을 전달했다. 한홍순 회장은 평협의 여러 회의를 통해 청소년위원회가 벌이는 약속 지키기 운동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평협이 평화방송·평화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평화 독서감상문대회’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석경 복지지원팀장과 최홍준 한국평협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김명수 신부 한국평협 방문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은 지난 8월 17일 평협 사무실을 방문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김명수 마티아 신부를 맞아 이 수도회의 한국 선교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명수 신

부는 지난 3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로마에서 추기경에 서임된 직후 정추기경 주례로 사제품을 받았다.

● 전국평협 민병덕 비오 지도신부 축일 축하모임

한국평협과 서울평협의 지도신부 민병덕 비오 신부의 축일(8월 21)을 앞두고 서울평협은 지난 8월 11일 한홍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함께 수향(水鄉)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나누며 축일을 축하했다. 한편 서울대교구 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회장 오소남)도 8월 7일 오후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월례 미사를 봉헌하고 민병덕 비오신부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사제생활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기사사도회원들은 이날 미사 후 만남의 방에서 국수잔치를 벌여 축일을 한층 더 뜻 깊게 지낼 수 있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

8월 27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카스텔 간돌포에서 신자들과 삼종기도를 바치신 다음 하신 말씀을 실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녀 모니카와 성 아우구스티노의 증언은 많은 가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편집자주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8월 27일, 우리는 성녀 모니카를 기억하고 내일은 그분의 아들 성 아우구스티노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증언은 우리 시대의 많은 가정에도 커다란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니카는 타가스테 (오늘 날 알제리아의 소우크-아하라스)의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모범적으로 살면서 남편 파트리시오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복음적 사랑의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모니카는 꿋꿋하게 세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이 자녀들 중의 하나가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이 아들은 처음에는 반항적인 기질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자신이 후에 말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그를 두 번 태어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눈물의 오랜 영적인 산고, 마침내 그가 신앙을 품에 안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바치는 것을 보는 즐거움으로 대단원을 이룬 그러한 영적인 산고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들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현명하고 신앙심 굳은 여인인 모니카는 이들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내요 어머니로서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 나가라고 권합니다.

아우구스티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전 생애가 바로 열정적인 진리탐구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내면의 고뇌를 겪은 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인류 역사 전체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청년기에, 그 자신이 술회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록 10, 27-38 참조), 세속 것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거기에 “몸을 쑤셔 넣었고” 이러한 행동은 신심 깊은 어머니에게 적지 않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여정을 통해서, 또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마음을 진리와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활짝 열고, 마침내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인도를 받아 밀라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최상의 진리이며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의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신 유명한 고백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 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나 밖에서 님을 찾았습니다…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멀음을 쫓으셨습니다.”(같은 곳)

성 아우구스티노,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잘못된 길에서 그것을 찾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린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진지하고 심오한 만남의 은총을 얻어 주십시오.

성녀 모니카와 성 아우구스티노는 신뢰심을 갖고 상지의 좌이신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라고 권합니다. 모니카처럼 모범과 기도로 자녀들의 인생 여정을 돌봐주도록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성모님께 맡깁니다.

동정녀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아우구스티노처럼 항상 진리와 사랑의 충만함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젊은이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열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